

# 서울대·전국의대 정시 합격자 5명중 1명 '강남3구' 출신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 최근 4개년 평균 63.4% 달해 전국의대, 45.8%로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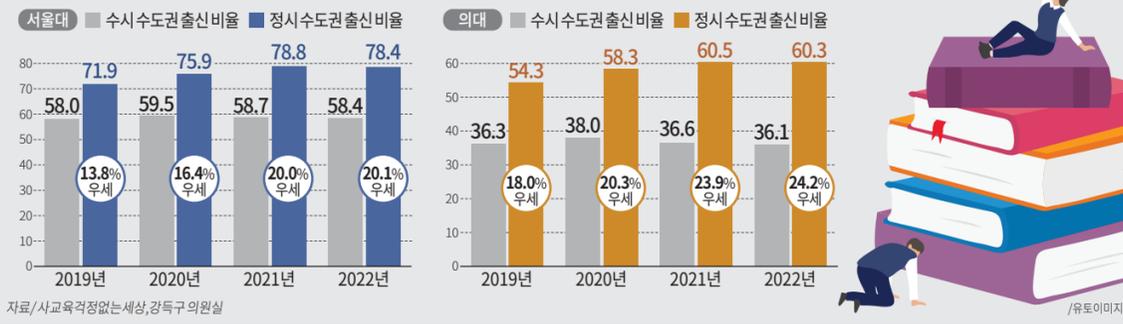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 "정시, 사교육특구 조장 점검해야"

서울대와 전국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생은 5명 중 4명꼴로, 수시전형은 절반가량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대 정시 5명 중 4명은 수도권 출신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

## 서울대, 의대 신입생 전형별 출신 지역



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정시에서 강남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19학년도 20.6%, 2022학년도 22.1% 등 4년 동안 모두 20%를 넘겼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까지 오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수도권 출신 비율은 58%(2019학년도)에서 59.5%(2020학년도), 58.7%(2021학년도), 58.4%(2022학년도)였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19년 71.9%에서 2022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4%가 상승

(75.9%)했고, 2022학년도에는 78.4%까지 치솟았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 의대도 강남 3구 출신 전성... "지역별 교육격차 해결해야"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의대 수시전형으로는 수도권 출신 비율이 36%대(36.1%→38%→36.6%→36.1%)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19년 54.3%에서 2020년에는 58.3%로 4%

가 오르고, 2022학년도에는 60.3%까지 치솟았다.

특히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율은 수시전형의 경우 2019년 8.5%에서 2020년 9.2%로 오른 뒤 2021년과 2022년 각각 8.0%, 7.3%를 보이며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19년 20.8%에서 2022년 22.7%까지 꾸준히 올랐다. 특히 2022년에는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율이 정시전형의 경우 22.7%로, 수시전형(7.3%)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민 70% '야간활동 활성화' 찬성

문화예술·사회교류·관광 등 선호 고려기능으로 '안심·안전'이 1위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어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6~10일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9%는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야간활동' 현주소를 살펴보고, '야간활동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책적 공감성을 묻기 위해 진행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야간활동 분야는 '문화예술·사회교류·관광·여가·문화(실내외 스포츠)' 순이었다.

야간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장 고

려해야 할 기능으로는 '안심·안전'이 39.1%로 1위였다. '교통(23.8%)' '경제 회복'(14.5%), '문화·여가'(14.3%)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이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가장 기대하는 사항은 '야간 교통수단 이용 편의 제고'(22.9%)였다.

'건강한 야간 여가문화 조성'(21.1%), '야간의 소음·환경·치안 문제 해결'(14.9%)이 그다음이었다.

/김현정 기자 hjk1@

# 덕성여대, 청년 고용서비스 활성화 앞장

하이미디어 아카데미와 업무협약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하이미디어 아카데미와 최근 대학일자리본부 회의실에서 청년 고용서비스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4차 산업기술 전문 인재 양성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취·창업 역량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수요 맞춤형 취업활성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덕성여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4년차 진행하면서 학생 및 지역 청년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커리어 탐색 및 경력형성 기회를 제

공하고, 취업경쟁력 강화 및 성공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미디어 아카데미는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 디자인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비롯해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손재현 대학일자리본부장(일어일문학전공 교수)은 "㈜하이미디어 아카데미의 다양하고 우수한 무료 국비 교육과정을 잘 활용해 학생들이 전공분야를 살려 해외 취업을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300만원 이상 체납 연봉 1억 직장인 특별관리

경기도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가운데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5월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천만 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가 75명 발견됐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심폐소생술 모형 등 구입비 25억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500곳 대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도내 학교에 체험형 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500교이며 학교별 50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학교는 지원금으로 심폐소생술 모형,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교육용 소화기, 교통안전 기자재 등을 구입해 교과 및 비교과 시간에 활용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이론이 아닌 실습·체험 중심 교육으로 학교 현장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체험·실습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 7대 표준 안전교육 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관련 체험형 기자재 구입비를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08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오늘의 날씨

5월 10일 (수) 음력 : 3월 21일

수도권 날씨 12~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8 | 해질 / 19:30

지역예보: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캐나다, 정치인 뒷조사 의혹 중국 외교관 추방  
▲ 러시아, 붉은광장서 전승절 78주년 열병식 개최 /사진 뉴시스

▲ 독일, 유럽 승전일에 러시아 국가·상징물 금지  
▲ 중국, 4월 수출 급증... 무역흑자 전년 비 82.3% 늘어



▲ 일본 경제산업상, 후쿠시마 시찰단에 "안전성 평가나 확인 아니다" /사진 뉴시스  
▲ 도쿄신문, 기시다 총리에 "강제징용 직접 사죄했어야" 비판